| 2025.10.31(금) | **동 향 분 석** | 동경사무소 |
|---|---|---|

| 제목 | 최근 일본의 경제·금융 동향(10월) |
|---|---|

< 실물부문 >

□ **(동향)** '25.8월중 **일본경제**는 **수출**은 개선되었으나 **민간소비**와 **설비 및 건설투자**가 지표별로 **혼조**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**생산**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**성장세**가 **둔화**된 모습

○ **고용**은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, **명목임금**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**실질임금**은 감소세를 지속

○ **소비자물가**(신선식품 제외, 전년동월대비)는 **식료품** 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, **에너지**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

□ **(전망)** 향후 **일본경제**는 인력 부족 대응 및 디지털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**완만한 성장세**를 보일 전망

○ 타카이치 내각의 경제정책이 설비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

○ **소비자물가상승률**(신선식품 제외)은 지난해 쌀 가격 상승의 기저효과, 정부의 물가상승 대책(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)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

< 금융부문 >

□ **(금융·외환시장)** 타카이치 트레이드*에 대한 기대, 미중 무역긴장 우려 완화, 일본은행 정책금리 인상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**장기금리, 주가 및 엔/달러환율 모두 상승**

* 타카이치 총리의 정책, 경제기조의 주요 내용은 재정지출 확대, 완화적 통화정책 지향, 반도체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산업 지원 등으로 시장은 환율·장기금리·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○ **예금금리**와 **주택담보대출금리**는 전월대비 **소폭 상승**

□ **(금융정책) 무담보 콜금리(O/N)**는 일본은행 정책금리(0.5%)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0.477~0.478% 수준에서 움직임

<참고 목록>
1. 2025년 9월 일본은행의「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」결과(p8)
2.「도쿄 단기금융시장 서베이」결과(p12)

작성자: 동경사무소 이종원 차장(통화정책), 최호식 과장(실물), 이소윤 과장(금융)

# Ⅰ. 동 향

## 1 실물경제 동향

**【소비 : 혼조】**

□ **'25.8월중 민간소비**는 지표별로 혼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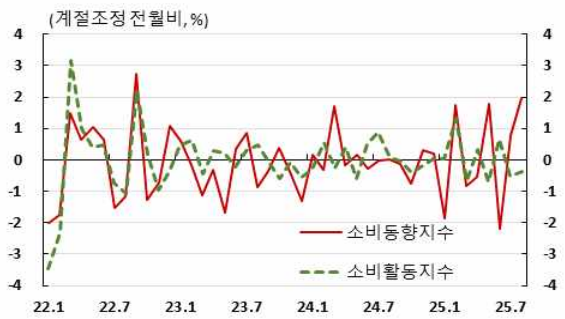
○ **가구소비동향지수**(실질, SA, 전월대비)*는 전월대비 2.0% 증가한 반면 **실질소비활동지수****(실질, SA, 여행수지조정, 전월대비)는 0.4% 감소

* 25.6월 -2.2% → 7월 0.8% → 8월 2.0%　　** 0.7% → -0.5% → -0.4%

○ 명목 기준의 **소매판매액***(전년동월대비)은 감소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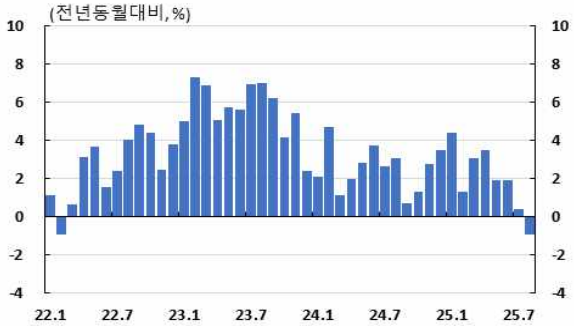
* 1.9% → 0.4% → -0.9%

**가구소비동향지수[1] 및 소비활동지수[1)2)]**




주: 1) 실질 2) 여행수지 조정
자료: 총무성, 일본은행

**소매판매액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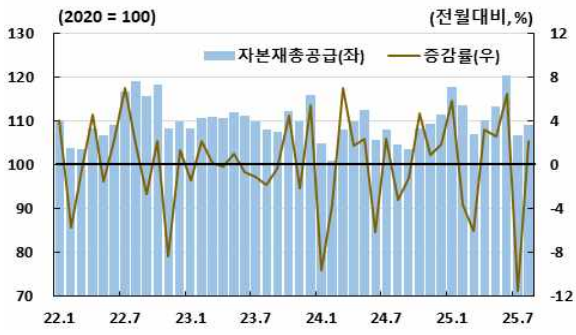

자료: 경제산업성

**【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: 혼조】**

□ 8월중 **자본재총공급***(SA, 전월대비)은 증가 전환하였으나,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**민간기계수주액****(선박·전력제외, SA, 전월대비)는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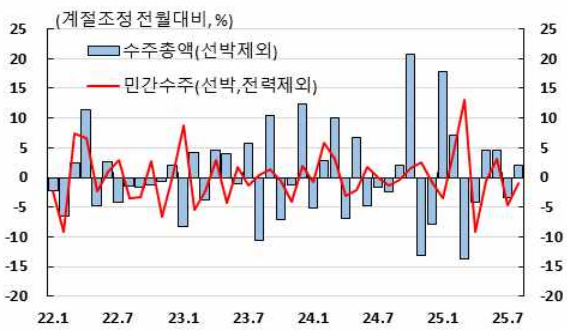
* 25.6월 6.4% → 7월 -11.5% → 8월 2.2%　　** 3.0% → -4.6% → -0.9%

**자본재총공급**




자료: 경제산업성

**기계수주액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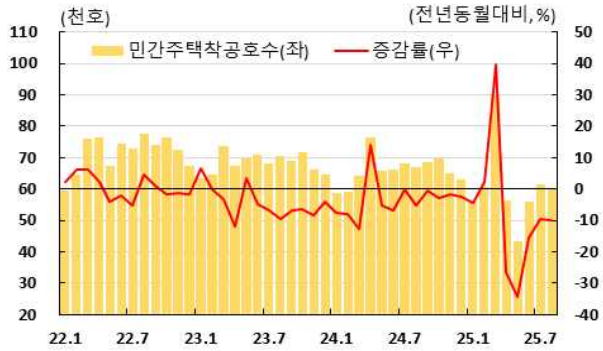



자료: 내각부

□ 8월중 **주택착공 건수***(전년동월대비)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, **공공건설 기성액****(전년동월대비)은 증가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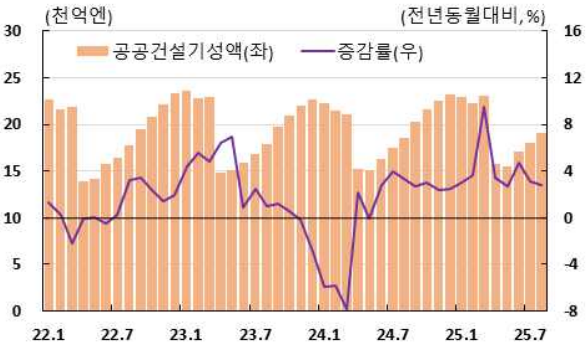
* 25.6월 -15.6% → 7월 -9.7% → 8월 -9.8%　　** 4.7% → 3.1% → 2.8%

**주택착공 건수**




자료: 국토교통성

**공공건설 기성액**




자료: 국토교통성

## 【수출 : 개선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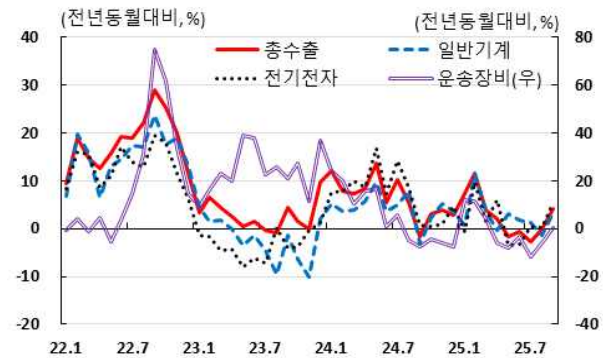
□ '25.9월중 **수출**(통관금액 기준, 전년동월대비)은 일반기계(3.5%) 및 전기제품(5.5%)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('25.7월 -2.6% → 8월 -0.1% → 9월 4.2%)

○ **수출수량지수**(2020=100, 전년동월대비)는 감소세 지속(1.2% → -3.9% → -1.3%)

□ **수입**(통관금액 기준, 전년동월대비)은 화학제품(5.5%), 전기제품(9.9%) 등이 늘면서 증가 전환(25.7월 -7.4% → 8월 -5.2% → 9월 3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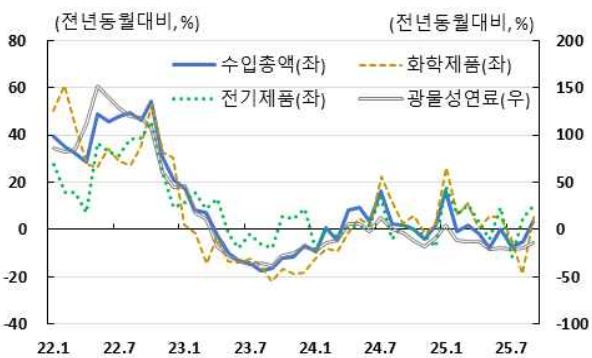
○ **수입수량지수**(2020=100, 전년동월대비)도 증가 전환(4.0% → -0.1% → 5.9%)

**품목별 수출**




자료: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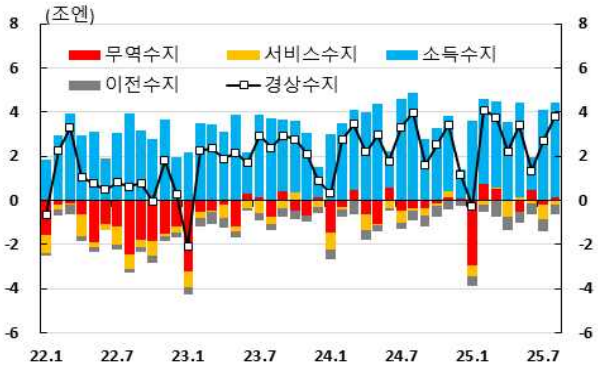
**품목별 수입**




자료: 재무성

□ 8월중 **경상수지**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,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흑자폭 확대 (25.6월 1.3조엔 → 7월 2.7조엔 → 8월 3.8조엔)

**경상수지 추이**




자료: 일본은행

**경상수지 추이**

(조엔)

| | 2024 | | 2025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3/4 | 4/4 | 1/4 | 2/4 | 25.6월 | 7월 | 8월 |
| 경상수지 | 8.9 | 7.1 | 7.6 | 6.9 | 1.3 | 2.7 | 3.8 |
| 무역수지 | -1.2 | 0.0 | -1.7 | -0.1 | 0.5 | -0.2 | 0.1 |
| 수출 | 26.6 | 27.8 | 26.1 | 25.8 | 9.0 | 9.0 | 8.4 |
| 수입 | 27.8 | 27.8 | 27.8 | 25.9 | 8.5 | 9.2 | 8.3 |
| 서비스수지 | -1.0 | 0.2 | -0.7 | -0.8 | -0.2 | -0.7 | -0.2 |
| 소득수지 | 12.3 | 8.0 | 11.4 | 9.3 | 1.5 | 4.1 | 4.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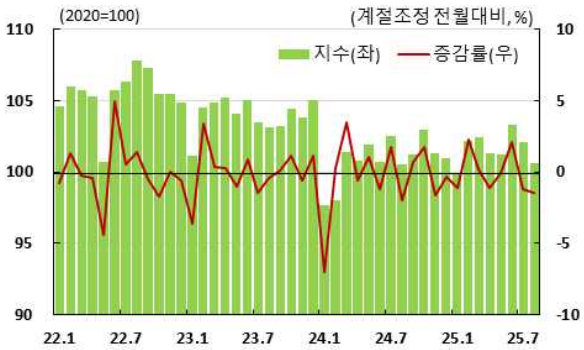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

## 【생산 : 감소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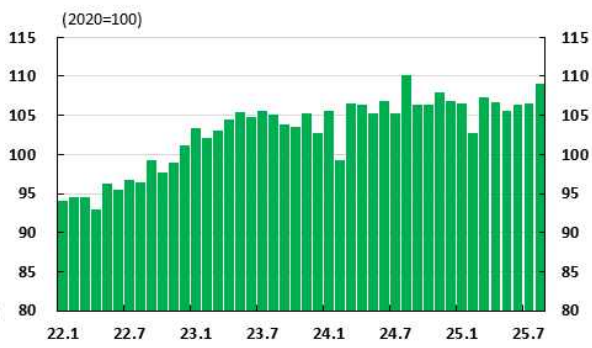
□ 8월중 **광공업 생산**(SA, 전월대비)은 금속제품(-8.1%), 화학(-5.2%), 전기정보통신기계(-5.7%) 등을 중심으로 감소(25.6월 2.1% → 7월 -1.2% → 8월 -1.5%)

○ 8월중 **재고/출하 비율**(재고율, 2020=100)은 상승(106.4 → 106.5 → 109.0)

**광공업 생산**




**광공업 재고/출하 비율**




자료: 경제산업성

## 【고용 : 다소 부진, 임금 : 증가세 둔화】

□ 8월중 **취업자수***는 전년동월대비 20만명 증가하였으며, **고용률****(취업자/15세이상인구)은 62.3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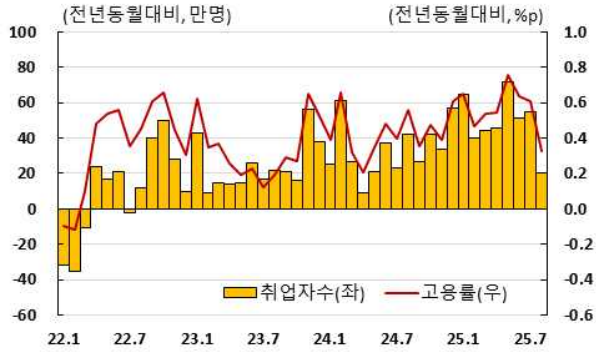
* 전년동월대비 증감(만명): 25.6월 +51 → 7월 +55 → 8월 +20

** 전년동월대비 증감률(%p): +0.6 → +0.6 → +0.3

○ 8월 **실업률***(SA)은 2.6%로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, **유효구인배율****(=유효구인자수/유효구직자수, SA)은 전월대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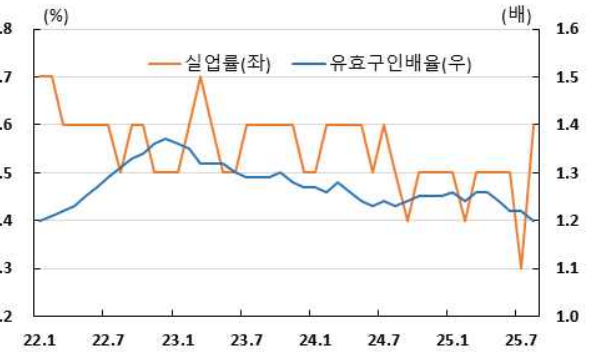
* 25.6월 2.5% → 7월 2.3% → 8월 2.6%  ** 1.22배 → 1.22배 → 1.20배

**취업자수 및 고용률 변동**




자료: 총무성

**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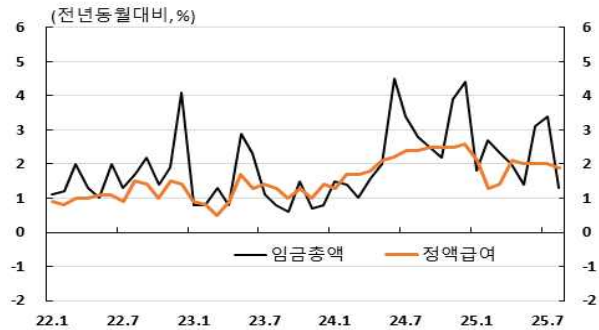



자료: 총무성, 후생노동성

□ 8월중 근로자 임금의 경우 **명목임금***(전년동월대비)은 상여금 등 특별급여(-7.8%)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, **실질임금****(전년동월대비)은 하락세 지속

* 25.6월 3.1% → 7월 3.4% → 8월 1.3%  ** -0.8% → -0.2% → -1.7%

**명목임금[1)]**




**실질임금[1)]**

주: 1) 5인 이상 사업장 대상

자료: 후생노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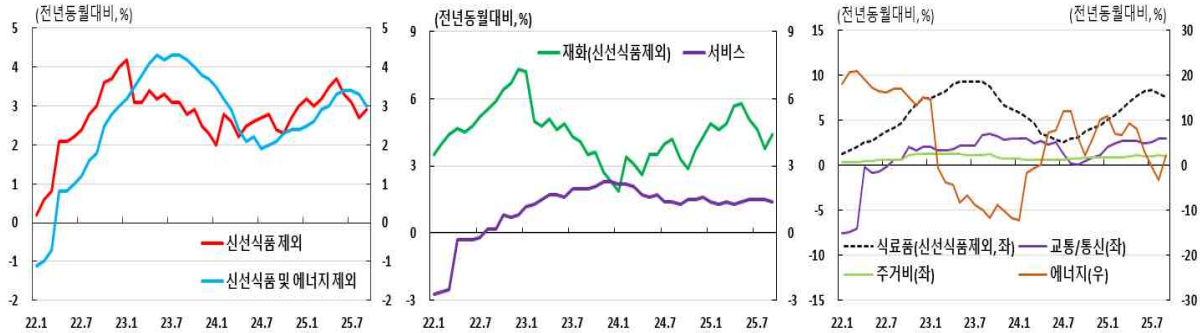
## 【물가 : 오름폭 확대】

□ ’25.9월중 **소비자물가**(신선식품 제외, 전년동월대비)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(8월 8.0% → 9월 7.6%, 신선식품 제외)에도 불구하고, 에너지 가격이 증가 전환(-3.3% → 2.3%)한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(25.7월 3.1% → 8월 2.7% → 9월 2.9%)

○ **재화**(4.6% → 3.8% → 4.4%, 신선식품 제외)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, **서비스**(1.5% → 1.5% → 1.4%)는 낮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

○ **신선식품·에너지 제외 지수**는 상승세가 둔화(3.4% → 3.3% → 3.0%)

**소비자물가상승률** **재화·서비스 상승률** **주요 품목별 상승률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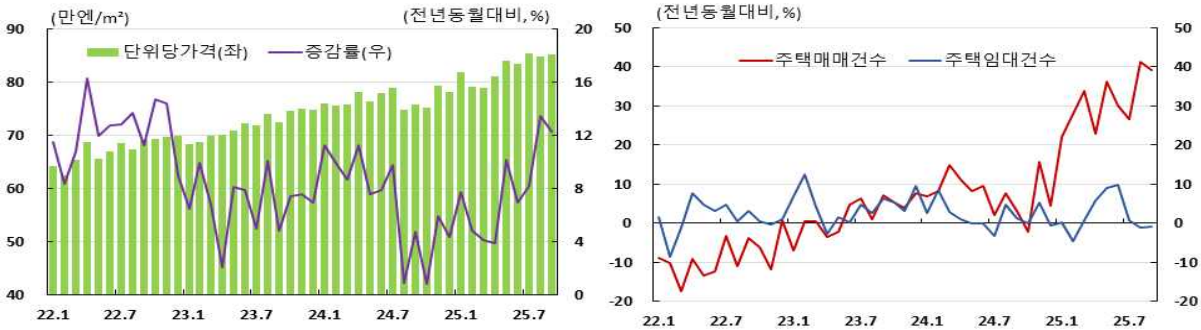

자료: 총무성

□ 9월중 **도쿄권 주택가격**(중고맨션 기준, 전년동월대비)은 높은 상승세가 지속 (25.7월 8.2% → 8월 13.5% → 9월 12.3%)

○ 9월중 전국 **주택 매매*** **건수**는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, **임대**** **건수**는 소폭의 감소세가 지속

* 25.7월 26.6% → 8월 41.4% → 9월 39.1%  ** 0.7% → -1.0% → -0.9%

**도쿄권[1] 중고맨션 판매가격** **전국 주택매매 및 임대거래 증감률**




주: 1) 도쿄도, 가나가와현, 사이타마현, 치바현
자료: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

자료: 부동산유통추진센터

**주요 경기지표 동향**

(%, %p)

| | 민간소비 | | 설비투자 | 건설 | | 무역 | | 생산 | 고용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소비 동향[1] | 소비 활동[1] | 자본재 총공급[1] | 민간주택 착공[2] | 공공 건설[2] | 수출[물량][2] | 수입[물량][2] | 광공업 생산[1] | 고용률[2][3] | 명목임금[2] [실질] |
| 24.3/4 | -0.2 | 1.0 | -3.6 | -2.0 | 3.3 | 4.5[-5.1] | 6.9[-0.3] | 0.3 | 0.4 | 2.9[-0.3] |
| 4/4 | -0.6 | -0.5 | 4.0 | -2.4 | 2.6 | 3.2[-0.9] | -0.5[-0.4] | 0.4 | 0.5 | 3.7[ 0.4] |
| 25.1/4 | -0.8 | 0.7 | 2.8 | 13.3 | 5.3 | 7.4[ 0.2] | 5.9[ 3.3] | -0.3 | 0.6 | 2.2[-2.0] |
| 2/4 | -0.1 | 0.1 | 1.6 | -25.6 | 3.6 | -0.0[ 1.6] | -3.2[ 5.7] | 0.4 | 0.6 | 2.4[-1.5] |
| 25.6월 | -2.2 | 0.7 | 6.4 | -15.6 | 4.7 | -0.5[ 2.5] | 0.3[13.1] | 2.1 | 0.6 | 3.1[-0.8] |
| 7월 | 0.8 | -0.5 | -11.5 | -9.7 | 3.1 | -2.6[ 1.2] | -7.4[ 4.0] | -1.2 | 0.6 | 3.4[-0.2] |
| 8월 | 2.0 | -0.4 | 2.2 | -9.8 | 2.8 | -0.1[-3.9] | -5.2[-0.1] | -1.5 | 0.3 | 1.3[-1.7] |
| 9월 | … | … | … | … | … | 4.2[-1.3] | 3.3[ 5.9] | … | … | … |

주: 1) 전기대비(SA) 증감률(%), 2) 전년동기대비 증감률(%), 3) 전년동기대비 증감폭(%p)

□ 한편 일본 정부는 '미국 통상정책에 의한 영향이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**경기**가 **완만하게 회복**'되고 있으며

'**향후에도** 고용·소득환경 개선,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**완만한 회복을 지속**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**미국의 정책** 영향에 따른 **하방리스크에 유의**할 필요가 있다'고 전망(전월과 동일, 내각부, 10.29일)

○ 부문별로는 **도산건수**에 대해 '대체로 보합을 나타냄'에서 '최근 들어 증가하는 보습을 보임'으로 변경

**일본정부의 경제부문별 기조판단**

| | 9월 | 10월 |
|---|---|---|
| 개인소비 | 회복 움직임이 보임 | (좌동) |
| 설비투자 | 완만하게 회복 | (좌동) |
| 주택건설 |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등의 개정전 수요 증가의 반동으로 최근 약세 |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음 |
| 공공투자 |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| (좌동) |
| 수출 |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냄 | (좌동) |
| 수입 | 회복 움직임이 보임 | (좌동) |
| 무역·서비스수지 | 적자를 나타냄 | (좌동) |
| 생산 | 보합을 나타냄 | (좌동) |
| 기업수익 | 미국 통상정책의 영향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개선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| (좌동) |
| 업황판단 | 대체로 보합을 나타냄 | (좌동) |
| 도산건수 | 대체로 보합을 나타냄 | 최근 들어 증가하는 모습이 보임 |
| 고용사정 |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| (좌동) |
| 국내기업물가 | 최근 보합을 나타냄 | (좌동) |
| 소비자물가 | 최근 상승하고 있음 | (좌동) |

자료 : 내각부 월례경제보고('25.10월)

<참고 1>

## 2025년 9월 일본은행의「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」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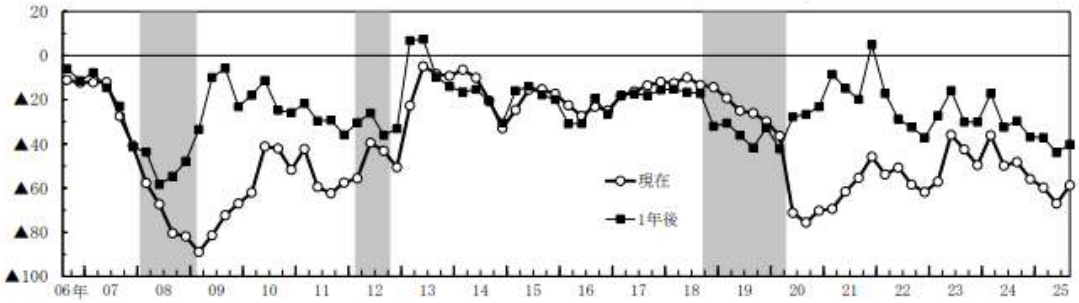
□ 일본은행이 실시한 「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*」결과, 국민의 체감경기 및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,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강화

* 일반국민의 체감경기, 생활형편, 물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매분기 실시. 금번 조사의 유효 응답수는 1,997명(표본수 4,000명)이며, 8.1~9.3일 중 실시

① **(체감경기)** 체감경기 DI(1년전과 비교하여 좋아졌음-나빠졌음)는 -58.7%p로 6월 조사(-67.0%p)에 비해 상승하였으며, 향후 전망(1년후를 현재와 비교) DI도 상승(6월 -43.9%p → 9월 -40.2%p)

— '24.9월 이후 1년만에 전분기대비 상승

**체감경기 DI 추이**




주: 1) 음영은 경기후퇴기 자료: 일본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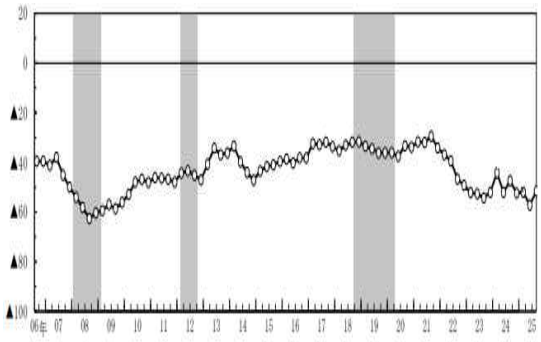
② **(생활형편)** 생활형편 DI(1년전과 비교하여 나아졌음-어려워졌음)는 -51.6%p로 6월 조사(-57.2%p)에 비해 상승

③ **(물가전망)** 현재와 비교해 1년후 물가가 '오를 것'('상당히 오를 것'과 '조금 오를 것' 응답의 합계)이라는 응답이 88.0%로 6월 조사(85.1%)에 비해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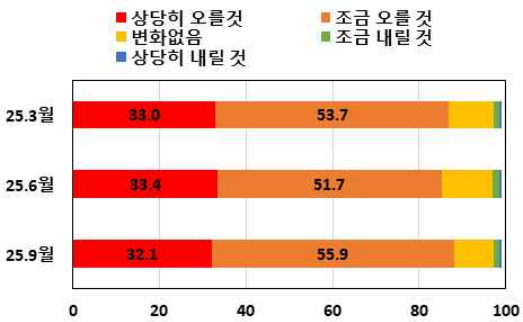
— 물가가 '오를 것'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6월 조사(88.9%) 이후 최고치를 기록

— '상당히 오를 것' 응답비중은 하락(33.4% → 32.1%)하였으나 '조금 오를 것' 비중은 상승(51.7% → 55.9%)

**생활형편 DI[1] 추이**




**물가전망 응답 추이**




주: 1) 나아졌음 - 어려워졌음 자료: 일본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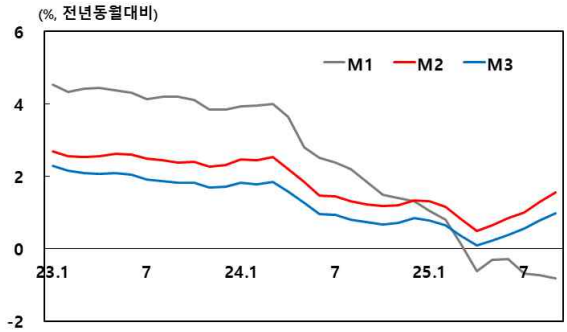
## 2 금융시장 동향

□ **(통화량 및 은행대출) 통화량 및 은행대출**은 증가율이 상승

○ 25.9월중 통화(M2, 평잔기준) 증가율은 1.6%로 전월(1.3%) 대비 상승하였으며, M1(평잔기준) 증가율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(-0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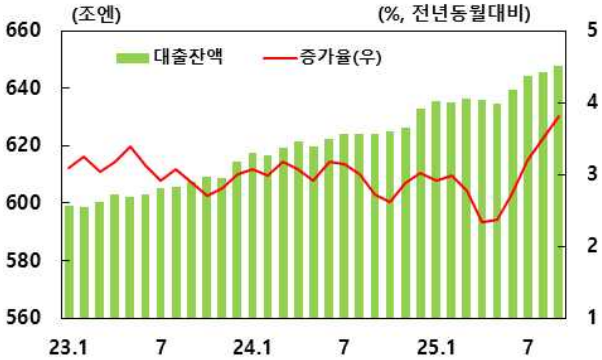
○ 25.9월중 은행(은행 및 신용금고 기준)대출 증가율은 3.8%로 전월(3.5%) 대비 상승

**M1, M2 및 M3 증가율**




자료: 일본은행

**은행대출잔액(평잔) 및 증가율**




주: 1) 은행 및 신용금고 기준 자료: 일본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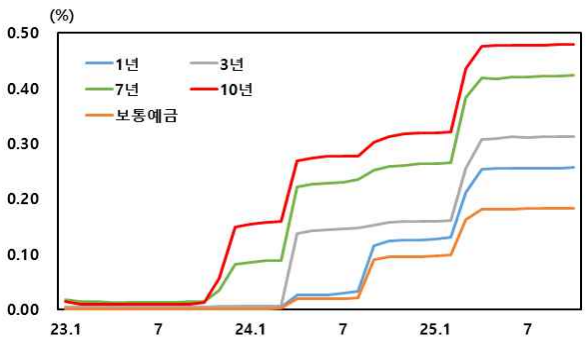
□ **(예금·대출금리) 예금금리**와 **주택담보대출금리**는 전월대비 **소폭 상승**

○ **[예금금리]** 정기예금금리(1년: 0.257%, 3년 0.313%)는 전월대비 소폭(0.001%) 상승하였으며 보통예금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

○ **[주택담보대출금리]**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의 다소 hawkish*한 분위기의 영향으로 변동금리(대형은행 기준)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(0.765%) 10년 고정금리도 지표금리(국채 10년물)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3개월 연속 상승(+0.123%p)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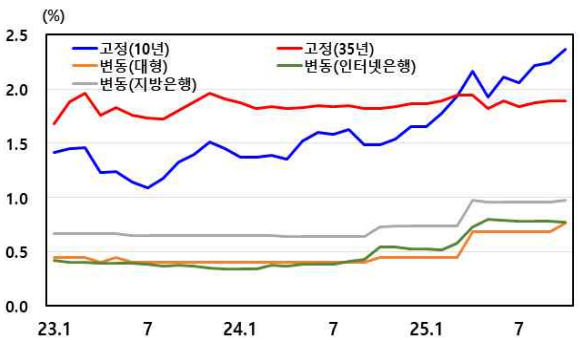
* 코어 인플레이션이 3년 이상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(2%)를 상회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및 고용·소득 여건 개선 유지 등을 배경으로 25bp 인상 소수의견이 있었음

**기간별 예금금리**




주: 1) 1,000만엔 이상 기준 자료: 일본은행

**주택담보대출 금리[1)]**




주: 1) 평균 자료: MFS

□ **(주요 가격변수)** 타카이치 트레이드*에 대한 기대, 미중 무역긴장 우려 완화, 일본은행 정책금리 인상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**장기금리, 주가 및 엔/달러환율이 모두 상승**

* 타카이치 총리의 정책, 경제기조의 주요 내용은 재정지출 확대, 완화적 통화정책 지향, 반도체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산업 지원 등으로 시장은 환율·장기금리·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**금융시장 가격변수**

| | 23년말 | 24년말 | 25.9월말 | 25.10.27일(전월대비) | 연중 최고 | 연중 최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환율(엔/달러) | 141.0 | 156.8 | 148.0 | 152.8(3.2%) | 158.3(1.8일) | 140.3(4.22일) |
| 주가[1](엔) | 33,464 | 39,895 | 44,933 | 50,512(12.4%) | 50,512(10.27일) | 31.136(4.7일) |
| 장기금리[2](%) | 0.614 | 1.101 | 1.648 | 1.673(0.025%p) | 1.696(10.9일) | 1.101(1.3일) |
| 무담보콜금리(O/N)(%) | -0.039 | 0.227 | 0.477 | 0.477(-0.000%p) | 0.485(2,12일) | 0.227(1.24일) |

주: 1) Nikkei225 2) 일본국채 10년물 자료: 일본은행, Bloomberg

○ 10월중 **장기금리**(국채 10년)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, 미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1.68%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며 소폭 **상승***(10.27일 1.696%.+0.025%p)

* 한편 초장기채(국채 30년물)의 경우 전월말 3.148%에서 총재선거 이후 3.306%(10.6일)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후 3.085%(10.27일)까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임

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타카이치가 당선(10.4일)되면서 재정확대 리스크 우려 심화로 급등하다가 연립내각 구성 과정에서 타카이치 내각의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후퇴*하면서 진정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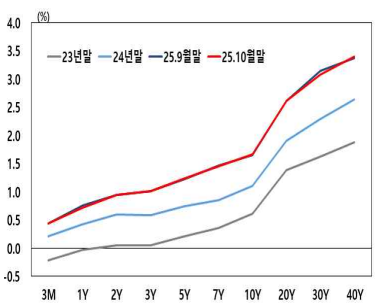
*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(10.21일)에서 '책임있는 적극재정'을 주장하였으나 유신회와의 연립정권 의석이 과반을 넘지 못해 초기에는 강한 적극재정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는 예상

○ 10월중 **단기금리**(무담보 익일물 콜금리)는 일본은행 정책금리(0.5%)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0.477~0.478% 수준에서 움직임

**국채(10년물) 금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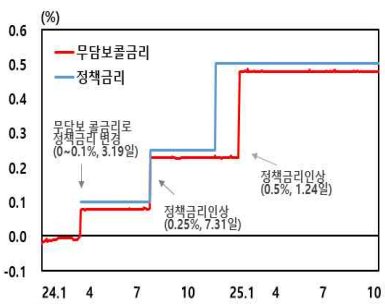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**수익률 곡선**




자료: Bloomberg

**무담보 콜금리(O/N) 추이**




자료: 일본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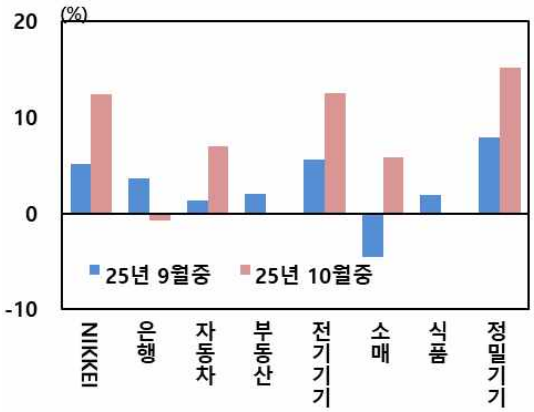
○ 10월중 **주가**(닛케이지수)는 타카이치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, 미 증시 상승, 미중 대립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(10.27일 50,512엔)를 기록

— 업종별로는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에 의한 AI 관련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반도체 제조장치 등 관련 정밀기기·전기기기업이 큰 상승을 보였으며, 엔저·달러강세에 따라 자동차업 등 수출주에 대한 매수도 활발한 모습

**닛케이지수**

자료: Bloomberg

**업종별 상승률**




주: 1) 업종별은 닛케이500
자료: Bloomberg

○ 10월중 **엔/달러 환율**은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완화, 미중 무역 긴장 완화 · 주가급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후퇴 등으로 상승(10.27일 152.8엔, +3.2%)

— 비상업목적 엔화선물 포지션(+ 순매수, - 순매도) 순매수 증가폭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(+8.0만계약)

**엔/달러 환율 및 내외금리차**

자료: Bloomberg

**엔화선물 포지션**

자료: Bloomberg

< 참고 2 >

## '도쿄 단기금융시장 서베이' 결과

□ 일본은행은 단기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'도쿄 단기금융시장 서베이'*를 실시(7월말 기준)하고 결과를 발표(10.1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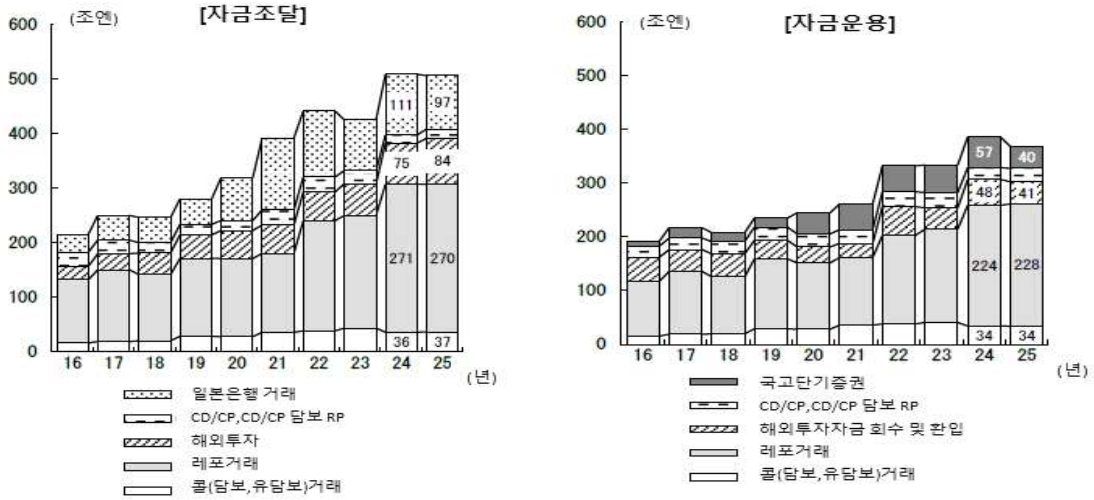
* 일본은행의 오퍼레이션 대상처 및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참가자(383사)를 대상으로 실시

○ 단기금융시장 거래잔액은 자금조달잔액이 전년 대비 보합세를 보인 반면, 자금운용잔액은 전년보다 감소

○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무담보 콜 거래나 레포 거래의 잔고에 큰 변화는 없으며 전년대비 보합

○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국고단기증권을 통한 자금운용 잔액은 전년 대비 감소(-17조엔), CP를 통한 자금운용 잔액은 전년 대비 증가(+2조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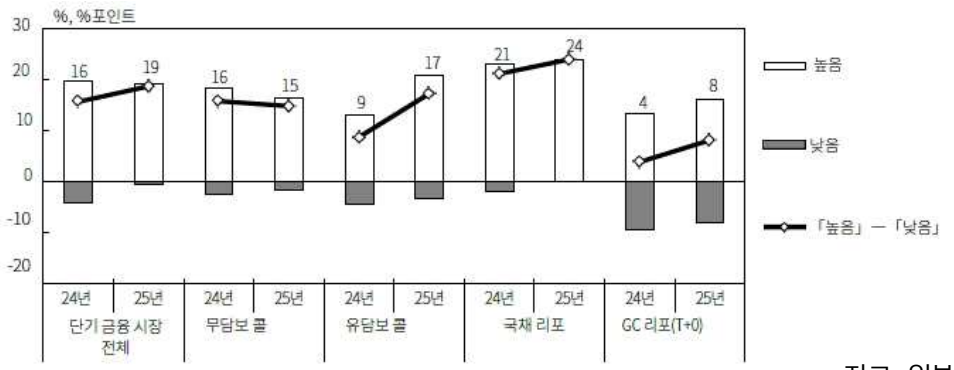
**단기금융시장 거래잔고**




자료: 일본은행

○ 단기금융시장의 기능도수준에 관한 평가는 모든 시장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용이해졌다(높다)는 응답 비율이 '낮다'는 응답 비율을 상회

**단기금융시장 거래 기능도 수준에 대한 시장 참여자 평가**




자료: 일본은행

□ **(금융정책) '25.9월중 일본은행의 자금공급**(본원통화)은 전년동월대비 6.2% 감소*

* 2024.9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

○ 자금공급 주요 요인인 국채매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당좌예금의 감소세가 지속('25.7월 - 4.3% → 8월 -4.5% → 9월 -7.1%)

— 9월중 부리대상* 일본은행 당좌예금 규모(당월 16일~익월 15일 평잔)는 480.5조엔으로 전월(500.8조엔)대비 감소

* 일본은행은 24.3월부터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금리(10.20일 현재 0.50%)를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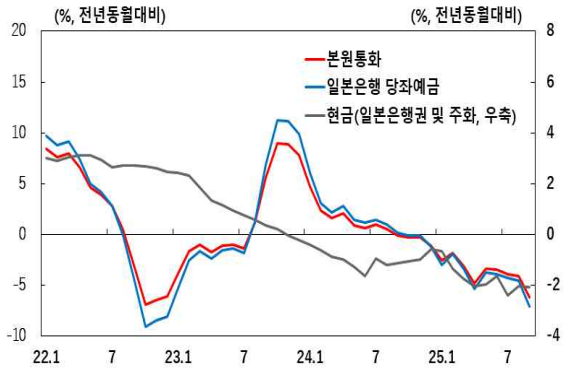
— 현금통화도 감소세를 지속('25.7월 -2.4% → 8월 -2.0% → 8월 -2.1%)

○ 9월중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매입규모*는 3.5조엔으로 전월(3.6조엔)대비 소폭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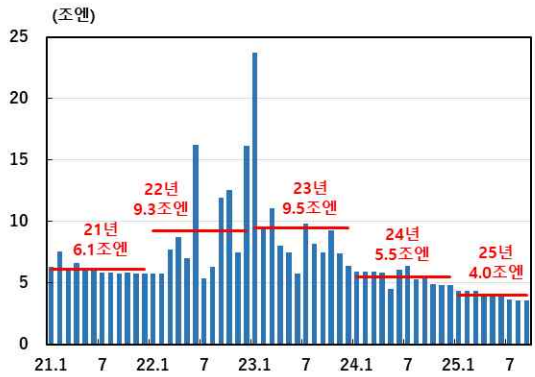
* 24.7월 및 25.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한 장기국채 매입 감액 계획(월 매입액을 26.1분기까지 매분기 약 0.4조엔씩, 이후 27.1분기까지 0.2조엔 감액)에 따라 감소

— 장기국채 보유잔액은 만기도래분(18.4조엔)이 매입규모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월보다 감소(569.9조엔 → 555.1조엔)

본원통화(평잔) 증가율




장기국채 매입 추이




자료: 일본은행

## Ⅱ. 전망

□ 향후 **일본경제**는 인력 부족 대응 및 디지털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**완만한 성장세**를 보일 전망

○ 특히 타카이치 정부가 설비투자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며, 이를 뒷받침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경제성장에 설비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

—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 둔화 및 주택투자 위축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

○ 일본내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'25년도는 0.82%로 9월과 동일하였으나, '26년도는 0.69%로 소폭 하향

**주요 기관별 실질GDP성장률 전망**

(연간)[1] (연간전망치 추이, 민간기관) (분기)[1]

주: 1) 민간기관은 37개 평균 자료: JCER, 각 기관

□ **소비자물가상승률**(신선식품 제외)은 지난해 쌀 가격 상승의 기저효과, 정부의 물가상승 대책(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)으로 **상승세가 다소 둔화**될 전망

○ 다만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, 기업의 가격 전가 행태 지속은 상승세 둔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○ 민간기관은 25년도 물가상승률을 2.75%, 26년도 물가상승률을 1.80%로 9월 전망대비 소폭 상향 조정

**소비자물가상승률(신선식품 제외) 전망**

(연간)[1)2)] (연간전망치 추이, 민간기관) (분기)[1)]

주: 1) 민간기관은 37개 평균 2) OECD는 Headline CPI 자료: JCER, 각 기관